

# 원로배우 김길호에 대한 기록 작업 - 남도(南道)목포연극 활동을 중심으로

## The Documentation Planning of Legendary Actor's Gil-ho Kim Focusing on 'Namdo-Mokpo-Play'

이정하

세명대학교 방송연예학과

Jeong-Ha Lee(ljhtoby@hanmail.net)

### 요약

공연예술계의 원로배우에 대한 기록과 보존의 과정은 여타 다른 예술장르보다 까다롭고 난해하여 원형 그대로의 형태로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하고 있는 원로배우를 대상으로 기록화 하는 작업에 대한 연구 필요성과 역사적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한국연극사의 다양한 시도와 발전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현장을 지킨 공연예술인들의 부단한 노력에 의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공연예술계의 예술인들의 대한 기록사업의 기록과 보존에 대한 인식이 뒤늦게 이뤄져 한국 근현대 예술사를 빛낸 원로배우들의 소중한 자산들이 손. 망실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배우, 작가, 연출가 등으로 활동을 한 원로배우 김길호(金吉浩)의 일생 중 남도(南道) 목포연극을 중심으로 그의 활동과 생애를 탐색하고 원로배우 유산 기록화 하는 작업의 의미를 되새기고자한다.

■ 중심어 : | 원로배우 | 기록사업 | 남도(南道) 목포연극 | 연기 | 김길호 |

### Abstract

It is almost impossible to keep the exact documentations of veterans' works due to the fastidious and convoluted nature of this particular field. The historical recordings of Korean Theater in general has been improved due to growing educations of staffs and actors through theatre associated universities But the need of preserving the recordings of veteran actors has not been recognized enough, therefore their precious assets has been lost, which is such a regretful truth.

However, with the necessity in mind, the following study is focused on Gil-ho Kim, an actor, playwright, director, and his works on 'Namdo-Mokpo-Plays'. Comparisons will be made, focusing on these plays, between his life as an actor and the meaning of documenting a veteran actor's assets.

■ keyword : | Legendary Actor | Documentation planning | Namdo-Mokpo-Play | Acting | Gil-ho Kim |

## I. 서론

1908년 원각사에서 공연된 <은세계>를 시초로 하여 한국의 현대연극은 100년의 역사를 넘게 되었다[1].

일본 유학생들에 의해 소위 '신극'이 도입된 이래 한국 연극은 100년사의 질풍노도의 세월과 함께 지속적인 공연예술의 꽃을 피운다. 이를 기념하여 2008년 연극관련 협회들을 중심으로 각종 축하행사가 이뤄졌고 책자

들이 발간되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연극사의 교육과 현장에서의 활동이 길다고 할 순 없지만 현재 연극예술의 대학교육과 현장에서의 활동 실적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하지만 100년의 한국 연극 역사의 찬란함 속에 원로배우에 대한 기록과 보관은 너무나 미비한 실정이다.

1920년-30년대 출생한 원로 배우들은 대다수 한 평생 연기를 하며 살아왔다. 무대에 서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시대적인 폼박과 설움의 세월도 이겨내고 물질의 풍요로움이나 자신의 성공, 명예 대신 예술을 선택하였다. 우리나라의 해방과 한국전쟁, 분단을 겪고 현대 사회의 빠르고 다양한 메커니즘을 요구하는 역동의 순간순간을 지내며 역사의 산 증인으로 살아 온 그들은 예술가로서 그들이 살아온 시대, 인간에 대한 성찰, 그리고 예술의 진정성을 공연이라는 매체를 통해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점기와 해방, 한국전쟁과 분단, 한국근대화의 격동기 역사 속에 연극관련 자료의 수집과 보관은 개인의 노력으로 이뤄졌을 뿐 국가 예술기관의 노력으로 기록사업의 의미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체계화하여 학술적 방법론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기록화 작업 연구의 사례를 통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한국 배우사(俳優史)의 산 증인인 원로 예술인 김길호의 초기 남도(南道)목포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그의 삶과 예술적 활동을 고찰하는 일이 가치 있는 작업임을 인식하여 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한다.

## II. 본론

### 1. 원로배우 기록화 작업연구

#### 1.1 기록화 작업의 가치와 의미

공연예술은 무대 혹은 어느 제시된 장소에서 실연되는 모든 형태의 현장예술을 말한다. 이는 본질적으로 참여하는 예술인과 관객이 같은 시간과 공간속에서 작품을 공유하는 형태의 예술로서 대표적으로 연극, 무용, 음악, 오페라 등을 말할 수 있다. 특히 공연예술 중 연

극은 종합예술로서 일회성으로 공연을 하는 동안에만 존재하다가 공연이 끝나면 사라지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공연예술만의 특징으로 인하여 기록화 작업연구의 가치가 있으며 이에 대한 인식의 발로로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전후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연극에서 배우란 ‘살아있는 존재’로 무대 위에서의 엄청난 위력과 표현에도 불구하고 막이 내리면 순간 사라지는 무형의 존재이다[2]. 즉 ‘무형의 존재’라는 특수성과 한계성을 가진 배우연구에서는 독자적인 연구와 논의보다 정확한 사실에 입각하여 활동한 역사와 가치관을 논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원로 배우의 기록화 작업에서 기록 대상자 관련 선행 관련자료 부족과 수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위해 생존해 계신 원로 예술인과의 직접 인터뷰, 관련 인물들과의 인터뷰, 그리고 관련 자료와 논문과 서적을 통한 생애사 연구를 함으로서 원로예술인들의 가치를 보존해 후대 사람들에게 전승해야 할 것이다.

#### 1.2 기록화 작업의 적용사례

우리나라의 예술가들의 기록사업의 의미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구술채록 사업을 시작한 곳은 1998년 한국예술종합학교 부설 한국예술연구소와 2001년 삼성문화재단 산하의 한국미술기록보존소이다. 그 이전에는 개개인의 논문과 연극관련 잡지의 인터뷰 등을 통해 기록이 남아있다. 이후, 국립예술 자료원은 2003년 예술분야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기획해 그간 창작사업과 극장 건축에 집중, 지원하던 예술분야에서 원로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자료수집 및 연구 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했고 예술사 구술채록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 사업이 가능했던 원동력은 탄탄한 기초설계 연구과정과 채록연구원(연구기관), 보조연구원, 촬영팀 등의 헌신적인 노력, 원로예술가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이뤄졌다[3].

국립예술 자료원에서는 “한국 근현대 예술사 구술채록사업”의 단계별 전체 사업진행절차, 사업수행체계, 내용별 업무분담내용을 중심으로 체계화된 형식을 통해 예술사 구술채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표 1. 사업수행체계와 업무내용[4]

저문/평가위원	사업담당자	채록연구팀	영상 촬영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영 저문</li> <li>▶대상 추천, 선정</li> <li>▶평가수행(영역/경성)</li> <li>▶설계 저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계획수립</li> <li>▶선정, 평가위원회 개최</li> <li>▶연구원 구성 및 위촉</li> <li>▶구술자섭외, 사업설명</li> <li>▶연담 모니터링</li> <li>▶워크숍, 세미나 개최</li> <li>▶결과물, 기증자료 접수</li> <li>▶연구결과물 발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계획수립</li> <li>▶면담시행(생애사/주제사)</li> <li>▶채록문 작성</li> <li>▶기증자료 정리</li> <li>▶평가용 자료제출</li> <li>▶평가결과 반영</li> <li>▶하이라이트 별도 제출</li> <li>▶저체평가, 연구후기 발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면담상황 기록(영상물, 사진 등)</li> <li>▶영상편집(자막삽입)</li> <li>▶비공개 편집</li> <li>▶매체별 자료 변환(6mm/DVD 등)</li> <li>▶원본, 편집본 제출</li> </ul>

[표 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기록사업의 사업수행체계의 업무내용은 체계화된 시스템에 의해 정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12년 4월 16일부터 5월13일까지 제 13회 서울연극제의 부대행사로 발간된 배우 100인의 독백-모노스토리 시즌1(도서 들녘)이라는 책과 영상 CD를 통해 배우자료 기록사업을 실시했고, 서울연극협회에서 주최한 ‘배우 100인의 독백-모노스토리 시즌1’ 행사는 40대 이상의 대학로에서 활동하는 배우들을 선별하여 자신의 대표 연극에서 독백낭송 형식과 배우로서의 진솔한 이야기를 엮은 도서와 영상으로 기록을 남겼다[5].

그 밖의 연극 관련 잡지와 매체들을 통한 배우인터뷰들과 각 대학 석. 박사 논문들을 통해 배우연구가 진행되며 기록되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한국 근현대 예술사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그리고 확산을 위한 최상의 방법을 구축하기 위해 공공기관은 물론 개인들의 다양한 노력으로 기록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 1.3 기록화 작업연구의 한계와 문제점

2012년 11월 2일 향년 88세로 생을 마감한 고(故) 장민호의 경우 현존하는 백성희와 함께 우리나라 연극사의 큰 획을 그었던 원로배우이다. 다행히 그의 기록과 자료는 국립극장, 국립예술원, 논문, 신문과 관련 잡지 등에 수록되어 기록화 되었고 후대에 길이 남아 연구되고 회자되어질 것이다.

공연예술계의 원로배우에 대한 기록과 보존의 과정은 여타 다른 예술장르보다 까다롭고 난해하여 원형 그대로의 형태로 유지한다는 것은 여러 제반사항으로 인하여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모든 원로배우들의 기록은 무대 위에서의 공연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한계를 갖고 있고, 원로배우의 기록 작업의 완벽한 연구방식의 매뉴얼이 없다는 점과 기록화작업에 대상자의 건강상 이유로 기록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허다하다. 게다가 국가 지원금에 의존하여 예술관련 기관에서 진행하다보니 전문성과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고 도약하고 있으나 예산의 문제로 폭넓은 대상자 선정과 기록 작업의 운영 면에서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연극사의 원로배우 기록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생존해 계신 분들의 가치 있는 기록사업을 국가예산에만 의존하지 말고 개개인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보다 많은 원로배우들의 기록화 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아래 [표 2]와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극분야 구술 채록 현황의 연극분야 26명 채록 연구자 중 원로배우는 김동원, 장민호, 백성희, 진랑, 권성덕, 오현경으로 총 6인의 원로배우가 기록을 마친 상황이다. 여기서 한국 근현대사의 공연예술계의 수많은 원로예술인 중 원로배우가 모두 6인이 선정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2. 연극분야 채록사업 현황 (2003년~2007년)[6]

수행 년도	구술자		채록연구자 *		
	성명	생몰년도	세부분야	이름	소속
2003	김동원	1916~2006	배우	김성희	한양여대 문창과 교수
	이현경	1916~2010	연출	백현미	명지대 인문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2004	장민호	1924~2012	배우	이미린	한예총 연극원 교수
	차법석	1924~2006	극작가	김성희	한양여대 문창과 교수
	신승	1929	번사	조혜정	수원대 연극영화학부 초빙교수
2005	이두원	1924	평론, 연극학	박정성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책임연구원
	여석기	1922	평론, 연극학	김성희	한양여대 문창과 교수
2006	백성희	1926	배우	박정성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책임연구원
	진랑	1922	배우	박정진	중앙대 교수
	이범복	1927	무대미술	김성희	한양여대 문창과 교수
	조금영	1930	여성극극	이승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정옥	1932	연극(연출)	김성희	한양여대 문창과 교수
	고함미	1922~2012	영화, 연극	이희진	연세대 국문과 강사

표 3. 연극분야 채록사업 현황 (2009년~2012년)[6]

수행 년도	구술자			채록연구자 *	
	성명	생몰년도	세부분야	이름	소속
14	박헌숙	1926	극작가	문건연	경희대 감사
15	임영춘	1934	연습가	서지영	평문가, 중앙대 독문학 박사
16		1928	극작가	이민순	독일 일한대 연극학 박사
17	박조열	1930	극작가	이민순	한양대 감사
18	노경식	1938	극작가	문건연	경희대 감사
19	권성덕	1949	배우	서지영	중앙대 감사
20	김유록	1934	연습가	이민순	한양대 감사
21	오현경	1936	배우	서지영	중앙대 감사
22	김의경	1936	극작가	문건연	경희대 감사
23	김영춘	1924	만담	이승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해연교수
24	심우성	1934	민속극	허동호	동국대 교수
25	조영숙	1934	여성극	문건연	한양여자대학 전임연구원
26	무세춘	1937	행위예술	김태연	연습가,

\* 각 장르별 채록연구자의 소속은 채록 당시의 기준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현재와 다를 수 있음.

한국연극 100년 역사의 산 증인이자 남도(南道) 목포 연극의 지대한 영향을 끼친 원로예술가 김길호의 기록은 회자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인 국립예술원에서 2003년부터 진행한 연극분야에서 제외된 이유는 다름 아닌 건강상 악화로 채록사업을 고사한 탓에 진행되지 못했고 아직까지도 그에 대한 기록 작업을 추진하는 단체나 개인의 노력은 거의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자는 한국 연극의 역사의 산 증인인 특히, 차별성이 목포를 떠난 이후 목포 지역연극의 활성화에 도모하는 주춧돌 역할을 한 원로배우 김길호를 연구대상으로 선택하였다.

## 2. 원로배우 김길호의 연구방식과 적용사례

### 2.1 연구 기초수립단계와 적용과정 그리고 한계점

원로배우 김길호의 삶과 예술 중 목포 연극 활동을 중심으로 논문을 쓰기까지의 단계별 프로세스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기본 계획 수립을 통한 논문, 문헌, 기사, 서적 등 원로배우 김길호의 기초 관련 자료 수집을 하였다. 이를 위해 국립자료원, 서울연극협회, 한국연극연출가협회, 한국연극예술학회, 목포예총의 도움을 받았음을 밝힌다. 둘째, 한국연극연출가협회의 ‘김성노’ 회장의 도움으로 김길호 선생님과 만나 기록화연구사업의 목적을 설명하고 추후 인터뷰 일정을 계획하였다. 셋째,

2012년 5월 12일에서 12월28일까지 총 6회의 만남과 수차례의 전화통화로 자료브리핑, 인터뷰, 수정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 속에서 ‘김길호’의 정확하지 않은 기억과 자료의 부족은 목포에서 같이 활동한 ‘김창일’의 도움으로 이뤄졌다. 넷째, 모든 진행상황을 기록화 한 내용을 정리하여 2013년 1월 4일 ‘김길호’에게 전달하였다. 다섯째, 원로배우 기록화작업에 ‘김길호’의 가치와 의미를 논문으로 정리하겠다고 말씀드렸다.

모든 기록화작업 과정 속에서 도출되어지는 문제점과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생존해 계신 김길호의 기억력과 목포에서 함께 활동한 김창일에 의한 자료조사와 정리과정에서 검수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의 소요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김길호의 건강상태와 일정잡기가 쉽지 않아 인터뷰가 몇 차례 지연되었고 다시금 약속일정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게다가 그의 생활에서의 잦은 이사와 자료보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초창기 활동했던 사진이나 공연프로그램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인터뷰 과정에서 연극&영상관련 종사자들이 함께 채록과 영상촬영을 진행하여 원로배우 김길호의 현재 모습을 최대한 기록하고 보관하기 위한 노력 또한 쉬운 일은 아니었다.

### 2.2 목포 연극에서의 김길호의 삶과 예술

1934년 5월30일(음력 4월 18일)전라남도 목포 죽동에서 아버지 김병규(金炳奎)와 어머니 모화봉(牟花峰)의 2남 1녀의 막내로 김길호는 태어난다. 산정 초등학교 입학하던 8살 때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의 개가로 어린 그의 인생에 상처는 크게 남게 되지만 조부모와 쌍둥이 삼촌들의 손에 유년시절을 보낸다. 그의 어릴 적 가정환경은 그리 유복하지는 않았지만 풍류를 즐기시던 할아버지와 삼촌의 영향으로 노래 부르는 것과 영화 보는 것을 즐겼다. 어릴 적부터 골목대장으로 동네 아이들을 이끌었고 행복한 유년기를 보냈다.

12-13살 무렵, 그는 마당에 아이들을 집결시키고 이불을 널어 무대막을 만들고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을 설명하고 역할을 나누어 연극연습을 하며 놀았다고 한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시절 해방을 맞이하고 1947년 동광중학교에 입학하였으나, 학업보다는 영화 보는 것

을 즐겼다고 한다.

“난 공부하는 게 참 힘들었어. 아이들은 구구단을 줄 줄 외고 학교 수업도 재미나게 잘하는데 나는 하기가 싫더라고. 그때 영화 보는 것에 미쳐있었어. 하루 종일 영화관에서 사는 게 낙이었던 난 학교 수업을 듣는 일이 얼마나 죽을 맛이었는지 몰라. 해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6.25가 터지고 목포로 피난 온 배우들과 예술인들과 함께 지냈던 것이 내 배우 삶의 물꼬가 되었지. 중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도 학교 수업보다는 목포극장과 평화극장을 다니며 난 영화를 즐겨봤었고 18살 때 목포 ‘연극 동맹’에 들어가 연극, 서예, 음악을 익혔지. 살 맛 나더군! 학교공부는 그렇게 싫더니만, 딴따라 생활은 어찌나 재미있었지! 6.25 사변 당시 한은진, 도금봉, 최은옥, 김희갑 등 쟁쟁한 예술인들이 목포로 피난을 와 배우들과 교류할 수 있었고, 19살이 되던 해 차범석 선생님의 작품 <별은 밤마다>로 연극배우 데뷔를 했지! 첫 공연이 시작되기 전, 심장이 뛰고 불안해서 침이 마르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 정신을 차리고 무대에서 서서 빨치산 역을 한 것이 나의 데뷔 무대였지[7].”



그림 1. 연극배우 데뷔 사진: 별은 밤마다  
아래 줄 왼편에서 두 번째: 김길호[8]

그의 기억에 의하면 한국전쟁 당시 피난을 온 유명 예술인들과 유달산의 절에서 연극, 문학, 음악 등 예술분야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고 한다. 목포예술인 단체 ‘예술문화동맹’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선배 예술인들과 함께 지냈던 그는 차범석을 만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였고 예술인의 길을 걷게 된다. 연극무대에 처음 데뷔하던 시절을 회상하던 그는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예술인이라면 한번쯤 겪어보았을 무대불안(Stage Anxiety)과 무대공포(Stage Fright)가 긴장감과 불안함으로 그를 초초하게 만들었지만[9], 1951년 1월27일 전국문화단체 총연합회 목포지부 결성과 더불어 삼일절 기념 종합예술제 기획행사 일환 이었던 <별은 밤마다>(2막) 공연에서 열아홉 살의 나이로 열연한다[10].

그가 태어나고 활동했던 목포연극의 시작은 일본에서 연극 및 문학을 공부한 유학생 출신의 김우진(金祐鎭), 이화삼(李花三), 함세덕(咸世德), 박경창(朴景昌), 장병준(腸秉俊), 홍순태(洪淳台), 백두성(白斗星)들이 의기투합하여 자연스레 연극 ‘눈 내리는 밤’ 공연을 하였고 목포에 연극예술의 씨앗을 뿌린 작품으로 평가된다[11]. 그리고 이후 차범석(車凡錫), 김길호(金吉浩) 등에 의해 집대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를 지나 1945년 해방이 되고 한국전쟁과 휴전, 분단의 세월을 살아온 김길호는 목포를 떠나던 1976년까지 목포 연극발전을 위해 수많은 예술 활동을 한다.

### 2.3 예술인으로 살아 온 김길호의 목포생활

“난 뜨겁게 살고 싶었어. 내 가슴 속에 응어리진 모든 것을 다 불사르는 삶을 산 것 같아... 지금에야 돌이켜 생각해보면 항상 옆에 있어주지 못해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은 들지만 연극을 하면서 살았던 내 인생은 아주 행복한 시간들이었어! 난 내가 살아 온 인생 후회 안 해! 살아있다는 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감사해하며 살아가고 있어! 자넨, 연극하며 사는 게 행복하지 않은가? (웃음)”[12]

한 평생 연극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당시를 생각하며 가슴 뜨겁게 주옥같은 시간을 연극을 하며 살았던 그의 얼굴 가득 젊은 시절 호방한 기운이 넘쳤다. 자애로운 그의 미소와 환칠한 외모에 그가 젊은 시절 삶의 파편들을 애써 회상하였다. 심한 뇌경색으로 20여 년 전 2차례 쓰러지신 이후 예전 기억을 되살리는 일이 너무 힘에 겹다고 하면서도 유독 차범석 선생님과과의 만남을 이야기할 때는 차범석과의 만남과 인연이 인생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연희대학 영문과의 학업을 6. 25 사변으로 본의 아니

게 그만 두게 된 차범석은 고향 목포로 내려와 목포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게 되었고 남도(南道) 목포의 새바람을 일으키며 1956년 목포를 떠나기 전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된다.

19살의 어린 나이로 차범석의 작품 <별은 밤마다>(2막)에 데뷔한 김길호는 이후 목포에서 배우, 연출, 작가, 방송인 등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초창기 목포에서의 그의 생활은 먹고 살기 위해 동분서주(東奔西走)하였다고 한다. 목포MBC방송국이 생기면서 성우, 30분짜리 방송 대본 쓰는 작가, 제작, 캐스팅 디렉터, 스크립터로 하며 돈을 벌었고 배우, 연출, 작가로서 쉬지 않고 활동하였다.

그러던 중, 1959년 김길호는 학생연극 경연대회를 장설하게 되어 젊은 후학들에게 배우로서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주는데 이는 차범석이 목포중학교 재직 당시 시도했던 학생극 운동이 모태가 되어 1959년 11월7일-8일 '유달국민학교'에서 처음 시작해 66년10월까지 7회의 연극 학생대회가 이뤄졌다[13].

그는 일제 강점기, 8.15 해방, 한국전쟁과 분단을 겪으며 격동의 한국사를 살아왔고 당시 열악했던 생활과 배우라는 직업에 대한 경시풍조를 이겨내며 예술인으로 한 평생을 살아왔다.

차범석의 연극 '별은 밤마다(1951년)'로 배우로 데뷔한 김길호는 군복무를 마치고 다시 목포에서 활동을 하게 된 그는 1958년 목포문화협회 산하단체 목포극회가 흥순대 초대회장이 조직의 형태만을 유지하던 것을 1959년 '목포극협(木浦劇協)'의 창립과 더불어 제 2대 회장을 위임받아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서 활발한 연극 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10]. 하지만 남도 전역에 닥친 극심한 한해(旱害)로 7년의 명맥을 잇던 학생연극경연대회는 참가학교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복합된 사회적인 분위기로 이듬해인 67년 잠정적으로 대회는 중단되었고 그는 가족들과 함께 1976년 고향 땅 목포를 떠나게 된다.

"22살에 군에 입대해서 3년의 군 생활과 잠깐 서울에서의 활동기간을 빼고 나면 난 목포에서 태어나 고향 땅을 떠나기 전까지 내 청춘과 젊음을 보냈어. 그때 참 살

기 어려웠지! 내가 30살 연극배우 탄따라 노총각 이었던 내가 23살 꽃다운 아내를 만나 결혼한 건 행운이었어! 당시, 내 아내(강영자:姜榮子)는 무안군청 재무과에 근무하는 재원으로 가난하고 한량(閑良)이었던 나를 만나 1남 2녀를 낳아 기르며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면서 평생 고생만 했지. 뭐... 참, 내 곁에서 평생 버팀목이 되어 주고 가정을 다 지켜준 내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꼭 좀 적어주게! 외롭고 실의에 빠져있을 때 힘이 되어 주었고 젊고 쾌기만만해서 실수도 많이 했고 연극 한답시고 가정에 소홀할 때도 옆에 있어준 사람이야! 고마운 사람. 30살에 결혼은 했는데 살집이 없어서 목포 남교동에 있던 예총사무실의 숙직실을 겨우 빌려 신혼살림을 차렸지. 내가 젊었을 때도 연극배우란 게 참 배고픈 직업이었어. 아이가 하나 둘씩 생기면서 가장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잖아? 근데, 재주가 있어야지?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었어. 물론 연극은 내 천직이라 생각하고 쉴 틈 없이 부지런히 연극만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 난 제대로 학교교육은 받지 않았지만 연기는 자신 있었다고! 젊어서 혈기왕성하고 쾌기도 있었고 가난보다 나의 뜨거운 가슴을 무대 위에서 발산하고 난 후 느끼는 만족감은 경험 안 해 본 사람은 모르지. 배우는 몸과 마음의 소리를 잘 듣고 행동을 해야 해. 인물을 만들어가는 것은 창조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배우인 내가 새로운 인물을 만드는 것에 책임이 따르는 거야. 무대에서의 행동은 곧 배우 자신에게서 먼저 출발하는 거란 말이야. 배우로서 무대 위에서 공연이 끝나고 관객들의 함성과 박수를 받는다는 그 만족 때문에 아무리 배가 고프고 힘들어도 내가 평생을 활동하며 견딜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아[7][12]."

그는 경제적인 궁핍 속에서도 연극무대에서의 뜨거운 연극공연 경험활동을 기억하며 무대 위에서의 '배우행동'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그가 말한 무대 위에서의 배우의 행동은 러시아의 배우, 연출, 교육자인 스타니슬라브스키(K. S. 스타니슬라브스키)의 연기이론과 유사하다. 즉 무대에서 표현되어지는 행동은 결국 연속적인 행위들로 이뤄지는데 스타니슬라브스키 이론에 의하면 이것을 '단위행동'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무대에서의 행위는 걷고 움직이는 손, 발,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갈망에 있다. ‘행위’란 말의 가면을 쓰는 일, 외적이고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행위다[14].”

결국, 스타니슬라브스키가 말한 ‘단위행동’의 연속성이 곧 무대 위에서의 ‘배우의 행동’을 형성하고 그것이 내적행동과 외적행동의 계획에 따라 구성되는 것이 배우의 ‘행동계획’(Acting Plan)인 것이다.

#### 2.4 김길호의 남도(南道) 목포에서의 활동 작품과 연기관

표 4. 김길호의 남도(南道) 목포에서의 활동 작품[15][20]

역할	활동 작품들
배우	별은 밤마다(1951)/정의의 사람들(1960)/달이 떠올때(1966)/베니스의상인(1969)/행선지(차신자 작:1975)
연출	장남의 권리(T.C말레이 작:1961)/탄갱부(조우코리 작:1964)/소매치기(김길호 작:1965)/달이 떠올 때(존 코벨리 작:1965)/담배내기(오재호 작:1966)/꿈(안톤체츠크 작:1966)/영웅(김길호 작:1967)/무적(차범석 작:1967)/베니스의 상인(셰익스피어 작:1968)/붉은 카네이션(그랜 휴스 작:1969)/표류(김길호 작:1970)/수업료를 돌려주세요(후리쯔 작:1971)/아름다운 도둑(이근삼 작:1972)/회전의자(김길호 작:1973)/붓물이 터졌네(천승세 작:1974)/어느 늙은 뱀에로의 수첩(김길호 작:1975).
작가	딸(1964년: 경향신문 신춘문에 가작입선)/소매치기(1967년:중앙일보 신춘문에 당선)/산바람/회전의자/영웅/표류/진공지대/당신의 고백/어느 늙은 뱀에로의 수첩/구름을 타는 사람들/울먹섬이야기(해곡)
기타	목포 KBS / MBC 방송작가/배우/연출/캐스팅 디렉터/ 제작 등 활동

조선일보 신춘문에 ‘귀향’으로 차범석이 당선되어 서울로 상경한 후 목포연극은 김길호에 의해 다시금 재경비하고 활발한 활동을 한다. 군대 제대 후 1959년 다시 고향땅으로 돌아간 그는 연극 ‘공상의 도시’를 출발로 관객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고 까뮈의 ‘정의의 사람들’은 1960년 1월19일 유원회관에서 박훤 연출로 막이 올랐다. 당시 ‘청계국민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던 승복순(昇福順)이 흥일점으로 김길호의 상대역을 열연한다[9][16]. 이후 번역극과 창작극들을 지속적으로 공연화하던 그는 1964년 경향신문 희곡부문에 ‘딸’이 당선작이 아닌 수석작으로 입선되었고 1967년 중앙일보 신춘문에 ‘소매치기’가 당선되면서 작가로서의 빛을 발한

다. 지속적인 작가 활동과 더불어 그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어느 늙은 뱀에로의 수첩’과 ‘해곡’(원제: 울먹섬 이야기)이라고 한다.

희곡 ‘어느 늙은 뱀에로의 수첩’은 김길호 자신의 배우인생을 무대화한 작품으로 그의 명성을 절정에 올린 작품이다. 1975년 목포 노동회관에서 공연된 연극에서 ‘늙은 뱀에로’ 역을 김창일(金昌一)이 맡고 ‘제자 배우’ 역을 김길호가 직접 맡아 열연을 한다. 김길호 자신이 직접 희곡을 쓰고 연출과 배우까지 담당하여 열정적인 공연을 올렸고 막이 내릴 때 우레와 같은 박수를 관객들에게 받았다고 한다[12][20].

가난한 심사판들의 애환을 맛깔스런 남도 사투리와 탁월한 연극적 구성으로 우리나라 사실주의 연극의 백미(白眉)를 보여준 연극 ‘해곡(海谷)’은 ‘울먹섬 이야기’라는 원제로 쓰여 졌지만 그가 서울로 상경하여 활동하며 입단한 극단 ‘춘추’(대표:문고헌)가 1984년 제 8회 대한민국 연극제에 참여하면서 ‘해곡’으로 작품명이 바뀌어 공연된다. 1994년 해남 미암 극단의 ‘김린’ 연출에 의해 해남군민회관에서 공연되어졌고, 제 12회 전남연극제에 참여하여 연출상(김린), 미술상(박승남), 우수연기상(김재봉), 특별상(박석남)등을 수상하여 전남연극계를 놀라게 한다[16][20].

그는 1976년 서울로 상경하기 전까지 배우, 작가, 연출, 방송인으로 다양한 삶을 살아간다. 배우로서 생활고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희곡과 방송작가 생활을 하며 가장으로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했기에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 다방면으로 일을 병행해야 했고 그에 노력과 활동으로 남도(南道) 목포 연극은 황금기를 맞이한다. 불혹(不惑)의 나이를 넘기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서울에서의 더 다양한 활동을 목표로 고향 땅 목포를 떠나기 전까지 현실적인 빈곤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뜨거운 예술에 대한 시간과 추억의 고향땅에서의 기억들이 아름다웠노라고 회상하는 그의 눈시울이 뜨겁다.

예술가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과 물질적 궁핍함 속에서도 김길호는 1950년대 이후의 척박했던 목포 연극의 중심인물로 활동하며 치열하게 작품 활동에 매진하였다.



그림 2. 원로배우 김길호의 인터뷰 사진 :  
2012년 8월 11일[17]

“요즘 배우들은 좋은 시대를 만난 것을 행복하게 생각해야 해. 다양한 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 대학교육과 현장의 작업이 많잖아. 공연문화예술이 활성화되면서 조금만 노력하고 정보를 찾고 배우가 되기 위해 실천하면 기회는 오는 거야. 그 기회를 잡으려면 노력해야지!

배우란 모방과 재창조라고 난 생각해. 게다가 타고나야 하지. 연극성은 기술과 기교가 더해져야 하고 기질과 재능도 있어야 해. 신체를 연마하고 정확한 화술을 구사해야 하며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지성으로 판단해야 하는 거야.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냐. 대본을 받는 순간부터 마지막 공연이 끝날 때까지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거야. 배우는 노력하는 자세와 실천이 요구되지. 나는 학교 교육보다 현장에서 선배들이 하는 것을 잘 보고 듣고 고민해서 인물을 만들었고 무대에서 공연을 했어. 배우는 창조하는 사람들이잖아. 몸과 소리 멈추지 않는 심장과 머리가 있으면 멋들어지게 무대 위에서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지. 내가 아닌 내가 만들어내는 인물로 말이야. 그게 배우야!”[18]

배우를 꿈꾸는 후학들에게 그가 이야기하는 좋은 배우란 끊임없이 배우훈련을 하는 사람으로 화술과 신체 훈련을 유연하고 바르게 트레이닝하고 정서적인 기억과 더불어 이성으로 조절해야한다고 말한다. 이는 러시아의 연기자이자 연출가, 그리고 교육자인 스타니슬라브스키가 정의한 배우를 이루는 4가지 요소와 동일하게 비유되어진다고 판단된다. 스타니슬라브스키는 배우란, 신체와 소리의 영역인 표현매체의 부분과 이성(지성)과 감성(감정)의 영역인 조절매체 부분으로 이루어

어진 복합적인 존재라고 했다. 다시 말해 배우는 ‘자연인으로서의 존재가 작가의 희곡 속의 인물을 분석하고 이를 무대에서 새롭게 형상화 하는 자’ 라는 것이다. 이는 배우란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발명가가 아니라 무대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자연인인 배우가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인물을 만들고 표현하는 기능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배우는 신체와 심리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며[19] 연기 교육과 다양한 배우훈련에 의해 자신이 형상화하려는 인물을 재창조하는 사람이다. 비록 원로배우 김길호가 한 평생 연기 교육을 받지 못하고 체험적 연기술을 바탕으로 한 배우의 삶을 살아왔지만, 이는 20세기 위대한 연기예술가이자 연기교육자로 평가되어지는 스타니슬라브스키의 연기예술과 비교하여도 다르지 않은 연극 현장에서 체험한 실질적 배움 이었다고 볼 수 있다.

원로배우 김길호는 1951년 배우로 데뷔하여 1976년 목포를 떠나기 전까지 25년 시간동안 배우, 연출, 작가 활동을 통해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였고, 당시 서울의 차범석 선생과의 교류와 친분 속에 좋은 연극공인들을 올렸다. 게다가 신춘문에 작가로 등단하여 자신의 희곡을 무대화 할 수 있었고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과 만원 사례는 목포연극발전의 부흥기를 갖게 되었다. 이처럼 남도 목포연극의 발전은 원로배우 김길호의 노력과 실천 속에 계몽극(啓蒙劇)위주의 공연을 하던 타 지역연극과의 차별성을 갖게 되었다. 척박한 현실을 극복하고 창조적 문화예술을 실천하며 한 평생을 살아가며 자신의 고향 남도 목포연극 발전에 이바지한 원로배우 김길호의 주옥같은 삶은 한국연극사에 가치 있는 사례로 평가되기에 결코 지나침이 없다고 판단된다.

### III. 결론

필자는 원로배우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성, 시급성, 공공성, 전문성’ 측면에서 원로배우 김길호를 연구하는 것의 중요성과 가치는 반드시 필요하기에 배우, 작가, 연출가 등으로 활동을 한 그의 일생 중 남도(南道) 목포연극을 중심으로 그의 삶과 예술 활동을 중심



으로 원로배우 기록 작업의 의미를 되새겨보았다.

배우는 연극의 꽃이라고 말한다. 원로배우 기록화 작업의 의미와 필요성을 공유하여 배우에 대한 연구와 자료수집, 채록사업은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배우가 되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 하지만 다양한 연기시스템과 훈련들이 우리나라에 꾸준히 소개되고 대학교육과 공연예술 현장에 적용하여 배우들이 배출되고 있다.

2013년 5월30일이면 김길호 선생님의 팔순(八旬)이다. 한 평생 예술인으로 살아오신 그는 건강만 허락한다면 유진 오닐의 <느릅나무 밑의 욕망>의 캐버트(아버지 역)를 해보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인생의 마지막 무대가 될 수 있는지 몰라도 그는 관객과 함께 호흡하고 배우로서 인물 ‘캐버트’ 내면(內面)속 인생에 대한 농후함과 깊이, 그리고 사랑에 대한 욕망을 고민하고 무대에서 ‘역할창조’를 다시금 시도해보고 싶다고 하신다. 불꽃처럼 살면서 예술가로서의 삶을 한 순간도 후회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그를 통해 연기에 대한 순수한 열정, 삶에 대한 진실함, 60여년이 넘는 원로 예술가의 주옥같은 인생의 가치와 무대에서의 예술적 창조와 실천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다룬 ‘원로배우 김길호의 남도 목포연극을 중심으로’에서 생존해 계신 김길호선생님과 예술인들과의 인터뷰, 그리고 한국연극관련 문헌과 자료에 의존하였음을 밝히는 바이다. 원로배우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활동사실을 바탕으로 원로배우의 삶과 예술을 고찰하고 기록화 하는 것에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도 생존하고 있는 원로배우들의 연기유산 기록이 확장되고 체계화되어 공연예술 분야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고 다방면으로 활용되어 원로배우들의 예술정신을 계승하고 예술사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소장 자료로도 적극적으로 보존될 수 있기를 바라며 원로배우 기록화 사업의 문제점들이 해결되고 문화적 자산의 가치보존이 이뤄지길 희망한다.

### 참 고 문 헌

- [1] 한국 근·현대 연극 10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 근·현대 연극 100년사*, 집문당, 2009.
- [2] 박명희, “한국의 배우-백성희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2호, pp.94, 2012(12).
- [3] 김현옥, “예술가의 삶과 예술을 기록하다”, 국립예술자료원, 2011.
- [4] 구술자선정자문위원회, “2012년 한국 근현대 예술사 구술채록사업 구술자 선정자문위원회 자료집”, 국립예술자료원, 2012.
- [5] 서울연극협회, *한국배우 100인의 독백*, 들녘, 2008.
- [6] 김현옥, “극장가의 생애사 구술을 통해 본 삶과 예술”, 여성연극협회, 2012.
- [7] 김길호 인터뷰, 아르코 대극장, 2012, 5, 12.
- [8] 김길호 인터뷰, 대학로 Cafe LE CHAT, 2012, 8, 11.
- [9] 홍길동, 오진호, 이기호, “배우의 무대불안 극복을 위한 심리기술훈련 적용”,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8권, 제6호, p.131, 2008(6).
- [10] 한국연극협회, “한국현대연극 100년”, 연극과 인간, 2008.
- [11] 차범석, “내가 살다 온 목포 연극(上)”, 한국연극지, 1989(10).
- [12] 김길호 인터뷰, 대학로 장, 2012, 9, 9.
- [13] 김길호, “내가 살다 온 목포 연극(下)”, 한국연극지, 1989(11).
- [14] K. S. 스타니스라브스키, 양혁철 역, “역에 대한 자신의 작업” 신아출판사. 2000.
- [15] 김길호 인터뷰, 연신내 카페, 2012, 12, 7.
- [16] 한국연극협회, “한국현대연극 100년”, 연극과 인간, 2008.
- [17] 고현옥. 사진&영상촬영. 연신내 카페, 2012, 8, 12.
- [18] 김길호 인터뷰, 연신내 카페, 2012, 12, 28.
- [19] 한진수, “연기접근 방법론으로서의 스타니스라브스키의 “신체적행동”의 효용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2호, pp.230, 2010(2).
- [20] 김창일, 목포예총 프로그램 제공, 2012, 12, 31.

저 자 소 개

이 정 하(Jeong-Ha Lee)

정회원



- 1993년 9월 : 러시아 국립 “셰프 킨” 연극대학 연기과(예술학사)
- 1997년 6월 : 러시아 국립 “슈우 킨” 연극대학 연기과(예술석사 MFA)
- 2008년 9월 현재 : 세명대학교

방송연예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연극연출, 연극연기, 연기교육